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Field Report

방송조명 디자인 Master Class 교육 열려

‘방송조명 디자인 Master Class’ 교육이 지난 8월 30일 (월)~31일(화)까지 2일간 일산 MBC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각 방송사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방송조명 디자인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제작 방식 변화에 따른 뉴스와 음악프로그램 제작사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HD 콘텐츠 조명과 영상 현업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구성은 램프의 구조, 색에 대한 고민, 조명의 감각 키우기 등 조명의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접근하는 내용부터 타 분야에서의 응용사례, 방송사의 제작사례까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심층 있게 다뤘으며, 이 커리큘럼 구성은 교육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강사진은 외부의 평론가, 유명 촬영감독부터 지상파 방송3사의 대표 조명감독들을 초빙하였으며, 강사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교육생들에게 소중한 자료들이 됐다. 그리고, 현실감 있는 강의는 교육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유도했으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변화시키려 노력해보자며 교육생들을 독려했다.

교육생들은 향후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습교육이 보강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비나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외의 조명 디자이너를 초청해 해외의 여러 가지 제작사례를 들어보거나, 최근 방송사들이 신사옥을 설립해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방송국의 조명설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운영에 관한 부분도 기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주제 : 램프의 구조와 이해

◇ 강사 : USHIO, Muraki Shinobu

◇ 내용 : 램프의 기본 원리 및 종류, 색온도 구현 등에 관한 이론을 설명했으며, 램프 개발에 있어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우시오사의 제품군과 램프마다의 다양한 특징을 소개했다. 우시오사의 램프는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강사는 이를 고려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램프의 특징, 사용 중 결함, 신제품 등)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했다.



◇ 주제 : Back to Basic

◇ 강사 : MBC 김원영, 김경민

◇ 내용 : 기초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조명을 위한 요소인 색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색은 통계학이다. 일반인들이 특정한 색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는 것이 수많은 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나와 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시청자가 공감 할 수 있도록 인물, 물체, 풍경 등에 색상을 표현해 내야 한다. 따뜻하다, 황홀하다, 우아하다 등 수많은 형용사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해야 되는데, 시청자의 생각에 조명감독들의 느낌을 더해 공감 할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을 창조해 내야 한다.



◇ 주제 : 노출계를 이용한 조명설계

◇ 강사 : 이중배 촬영감독

◇ 내용 : 노출계와 계측기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노출에 영향을 주는 조리개, 셔터스피드, 필름감도, 필터, 조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서 조명설계 시 노출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노출계 사용 시 범할 수 있는 오류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 ◇ 주제 : **예술작품 속의 조명**
- ◇ 강사 : 한창호 평론가
- ◇ 내용 : 바로크시대 회화의 명암 대조와 필름 누아르의 연관성을 주제로 영상물의 조명발전이 고대 회화들에서 응용되어 발전해 온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17세기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기괴하고, 음침하고, 남성미가 주를 이루던 사회문화로 주요 화가로는 카라바지오, 루벤스, 렘브란트가 있다. 이 화가들은 작품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밝기의 정도로 시대상을 잘 표현했으며, 이런 그림들은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 영화 오손 웰스의 <악의 손길, 1958>, 이안의 <브로크백 마운틴, 2005> 등에서 조명을 활용한 영상들이 잘 표현됐다.



- ◇ 주제 : **뉴스 조명 디자인사례(MBC)**
- ◇ 강사 : MBC 조남근
- ◇ 내용 : 뉴스 조명과 다른 조명의 차이점을 서두로 MBC의 뉴스 조명의 콘셉트, DLP, Key light의 운영 등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뉴스가 남녀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는데, 조도의 차이로 조절하고 있으며, 입체감을 위한 그림자를 원하지 않는 추세여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데스크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 등 실제 업무에서 쌓인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다.



- ◇ 주제 : **뉴스 조명 디자인사례(SBS)**
- ◇ 강사 : SBS 박임실
- ◇ 내용 : SBS는 2004년도에 오픈한 목동본사 신사옥의 조명 설비를 예로 들어 8시 뉴스, 스포츠 뉴스, 일기예보 등의 콘셉트, DLP, Key light의 운영을 소개했다. 회전식으로 구성된 앵커테이블이나 천정회전판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DLP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법과 형광등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 ◇ 주제 : **음악프로그램 디자인사례(KBS)**
- ◇ 강사 : KBS 한상호
- ◇ 내용 :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 열린 음악회, 콘서트 7080, 뮤직뱅크 등에 활용된 다양한 조명기법과 조명기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이트가 잘 표현된 작품이나 핀 조명 하나만으로 표현된 작품, 공연장 느낌을 연출한 작품 등 조명디자인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시대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감각의 조명 디자인을 요구했다. 새로움을 찾는 것은 조명 감독들의 몫으로 조명 디자인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부탁했다.



◇ 주제 : 음악프로그램 디자인사례(MBC)

◇ 강사 : MBC 김원영

◇ 내용 : 음악프로그램 제작의 작업과정, 인원 및 장비현황, 작업환경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MBC 음악프로그램인 '쇼! 음악중심'의 조명 디자인 작업과정을 예로 들어 다양한 조명기법들을 소개했으며, 무대를 살려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 주제 : 음악프로그램 디자인사례(SBS)

◇ 강사 : SBS 원정식

◇ 내용 : SBS 인기가요를 예로 들어 작업과정, 인원 및 장비현황 등을 알아보고, 인기가요 조명의 특이사항(LED 장비, 무빙라이트)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SBS 인기가요 중 사전녹화물을 중심으로 조명 디자인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출연진(비, 2PM, 엠블랙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 주제 : 미디어 서버의 활용

◇ 강사 : MBC 장익선

◇ 내용 : 미디어 서버의 등장 배경과 왜 미디어 서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미디어 서버의 활용 예(U2 콘서트, 라제리 쇼, 쇼! 음악중심 등)를 제시하여 발전하는 조명 디자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는 만큼, 어떤 미디어 서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고, 스튜디오에 실제 차량을 동원해 미디어 서버를 이용한 시연과 장비를 조작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응용은 학습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에 미디어 서버의 활용이 잘 서술된 글이나 도서를 추천하여 교육생들에게 항상 노력하는 조명 디자이너의 모습을 지니도록 독려했다.



◇ 주제 : 3D 영상과 조명

◇ 강사 : MBC 최윤희, 김재훈

◇ 내용 : 3D의 정의, 입체감, 3D 장비와 Rig, 촬영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촬영의 어려움이나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 조명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